

■ 특집 :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동향과 전망

오 경 환
성신여대 사학과

I

현대사회에서 다인종/다문화 현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로 규정되는 사회에서조차 다인종/다문화 현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친의 국경 없는 마을에서 해화동의 필리핀 장터로, 농촌의 외국인 신부까지 자본 주도의 세계화가 생산하는 현실은 현대사회의 다인종성 혹은 혼종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다인종/다문화성은 19세기 이래로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차이’를 수렴하는 기제였던 국민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혼종성의 강화는 국민국가와 치열하게 충돌하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대한 인식론적·실천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 미국 역사를 그 시작, 혹은 그 이전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특징짓던 사회적 갈등은 이분법적인 흑백갈등의 양상이었다.¹⁾ 하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인종갈등을 이분법적으로 환원할 수 없이 히스패닉,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소수’ 문화와 백인 ‘주류’ 문화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화되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 정체성으로 정의할 수 없는 혼종적 정치, 사회, 문화 현상의 증가는 정체성을 넘어선 새로운 사유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사유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문화주의와 트랜스내셔널

1) 물론 이러한 견해 역시 일종의 ‘신화’이다. 미국 사회 초기의 갈등은 단순히 흑백의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유럽 민족들, 앵글로 색슨 계, 아일랜드 계, 이탈리아 계, 독일 계, 동유럽 계, 유대 계 사이의 갈등도 내포하고 있었다.

리즘(transnationalism)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수사와 결합한 다문화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 현실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의 현실에서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다문화주의가 혼종적 현실을 다루는데 적합한 이념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라는 현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로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등장했다. 하지만 트랜스내셔널리즘 역시 복잡한 이론적 층위와 논의의 다양한 당파성 때문에 불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 두 분석틀의 역사를 개관하고 이들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II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주의는 19세기 후반 이래 국민국가 혹은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수렴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 왔다.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국민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을 거친 뒤 강력한 이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형태의 인종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한 나치즘의 기억은 냉전이라는 또 다른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 갔다.

특히 미국은 이민에 의한 다인종 국가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문화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채택해 왔다. 흑인 민권운동,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미국 연방법원 판례 *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은 미국의 정치와 교육에서 다문화주의를 다문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립시켰다. 하지만 로티(Richard Rorty)가 지적하듯 다문화주의는 1980년대의 보수주의 문화투쟁과 영·미에서 일어난 보수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정치적 수세에 처하

기 시작했다.²⁾ 더구나 ‘정치적 올바름’으로 대표되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수사는 보수주의자들뿐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도덕적 교조주의로 의심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퇴조는 다양한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수주의, 특히 복음주의적 기독교 원리주의의 급속한 정치적 부상은 다문화주의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오늘의 현실에서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교육기관 커리큘럼 상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격 등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 자체의 이론적 문제 역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기원은 19세기 말의 실용주의로 소급해 볼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다원적 사회나 프란츠 보아의 문화적 상대주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³⁾ 문화적 상대주의는 분명 중립적인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출발했다. 하지만 문화적 상대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론적 불확정성, 윤리적 중립성은 사회 조직원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분화한 다양한 방식의 정체성 정치에서 명확하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표현대로 개인적 차이를 정치화 시킨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등의 다양한 차이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는 특히 미

2) Rorty, “The Demonization of Multiculturalism,” *The Journal of Blacks in Higher Education*, 7(1995), pp.74~5. 이러한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알란 블룸(Allan Bloom)의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8)를 들 수 있다. 물론 실질적인 다문화주의의 전성기가 1990년대 클린턴 집권기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다문화주의가 이미 1980년대부터 이론적·정치적 수세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르펜의 정치적 성공에 자극 받은 1990년대 프랑스 좌파, 특히 피에르 앙드레 따기에프(Pierre-André Taguieff)와 엠마누엘 토드(Emmanuel Todd)는 “다를 권리(droit à différence)”로 대표되는 프랑수아즈 다문화주의를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Cf. Taguieff, *Le Couleur et le Sang* (Paris: Mille et Une Nuit, 2002).

3) James, *Pluralistic Universe*, 1909. Franz Boa, “Museums and their classification,” *Science* 9 (1887)

국 1960년대 시민권 투쟁에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 바 있다.⁴⁾ 더구나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주체(liberal political subject)가 독립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포섭(assimilated)되고 재생산되는 개인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⁵⁾ 차이를 재현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는 다문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적인 것의 정치화’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먼저 이미 제도화된 정체성 정치의 틀은 차이와 다름을 대변한다기보다는 혼종적 현실의 차이를 제도화되고 정형화된 정체성 안에서 용해했다. 만약 “한 방울의 흑인 피(one drop of black blood)”가 한 사람의 인종적 정체성을 흑인으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차이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정체성 정치는 개인에 대한 억압으로 기능하지 않는가?⁶⁾ 따라서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상황은 한 개인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체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흑인-히스패닉 혼종 레즈비언 여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녀는 계급, 복수의 인종, 성적 정체성, 성별 중 무엇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가? 각각의 정체성이 표상하는 정치가 서로 충돌할 때 정치적인 주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⁷⁾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970년대에 유행한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주의에 핵심적인 가치중립성은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상황 속에서 판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계급적 정체성도 성별에 의한 정체성도 성적 취향에 의한 정체성도 선제적인 가치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정

4) 이 유명한 언명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다. 캐롤 헤이니쉬(Carol Harnish)의 같은 제목의 짧은 논문(1969)은 뉴욕의 급진 여성주의자 그룹 레드 스타킹즈가 펴낸 *Feminist Revolution* (New York:Raudor House, 1979)에 실려 있다. 하지만 밀즈(C. W. Mills)의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London: Grove Press, 1959)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들어있다.

5) Carol Pateman, *The Sexual Contract* (Cambridg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Charles Mills, *The Racial Contra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6) Adrian Piper, “Passing for Black, Passing for White,” in Elaine K. Ginsberg ed., *Passing and the Fictions of Ident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6).

7) Susan Okin et al,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Okin,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Some Tensions,” *Ethics*, 108 (1998), pp.661-684.

체성 정치를 고수하는 한 정치적 판단은 결국 가치의 기계적 증명성을 넘어선 곳에서 특정한 문화적 양식(이 담보하는 가치)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문화주의를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⁸⁾

다문화주의가 담보하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체성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나 웬디 브라운(Wendy Brown), 리사 로우(Lisa Lowe)와 같은 학자는 여성, 인종, 민족 등의 정체성의 특수성에 유의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의 재분배에서 찾았다.⁹⁾ 이들은 계급적 모순의 선제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그 안으로 수렴하려 했다. 탈 구조주의자들은 먼저 정체성의 형성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체성을 고정되거나 실체화된 무엇으로 보는 것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자아를 가두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탈 구조주의자들은 실체적 정체성보다는 수행성(performativity)이나 실천을 통해 정체성의 요소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¹⁰⁾ 다만 이들의 작업은 다문화주의 자체의 진화라기보다는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극복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크와미 안토니 아피아(Kwame Anthony Appiah)의 최근 작업은 눈길을 끈다.¹¹⁾ 뿌리내린 세계시민주의(rooted cosmopolitan-

8) 이러한 논지의 대표적인 예는 하버마스와 지젝을 들 수 있다. Jürgen Habermas,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Amy Gutman (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Slavoj Žižek, "A Leftist Plea for Eurocentrism," *Critical Inquiry*, 24(1998).

9) Nancy Fraser,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1998); Wendy Brown, *States of Injury: Power and Freedom in Late Moder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Lisa Lowe, *Immigrant Acts* (Durham: Duke Univ. Press, 1996).

10)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9[1990]); Denise Reily, "Am I that Name?": *Feminism and the Category of 'Women' in Hist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11) 아피아의 학문적 작업은 그의 개인사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아피아는 아버지가 가나인이며 어머니는 영국인, 그 자신은 동성연애자로서 어떤 단일한 정체성으로도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Kwame Anthony Appiah, *The Ethics of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5).

ism)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작업은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는 다문화주의적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그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종합적으로 수용한다. 아피아는 고전적인 맥락에서의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자치의 개념을 복원시키며 정체성(들)을 개인성이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이렇게 구성된 개인성은 세계시민주의에 정초한 “공통의 인류(common humanity)”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인류는 단순히 “보편적인 이성”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험, 공통의 삶 이야기, 심지어 지역적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¹²⁾

아피아의 반성적 다문화주의적 정치의 구상은 분명 기존의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아피아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정치적 주체는 적극적인 행위주체라기보다는 끝없이 경계를 미는 개인(boundary-pusher)라는 점이다. 더구나 아피아에게서 드러나는 주체화의 욕구는 그의 기획이 근대적인 보편-특수의 길항관계에 기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현실 정치의 장에서 이러한 입장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경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 특히 국민국가와 자본주의적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실의 자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문화적 상대성의 인식이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근원적인 한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데 있다.

III

다문화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언제나 두 얼굴을 지닌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혼종적인 문화 현실과 노동의 이주와 이산으로 대변되는 경제 현실, 또한 국가의 상·하위 행위자들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정치 현실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하여 국민국가가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대상이 세계화라는 현실이라는 점 뿐 아니라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사유의 성립과 전파가 세계화라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전파는 소위 저개발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저항의 효과를 완화 혹은 무화시킨

12) *Ibid.*, pp.267-8.

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의 저작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딜릭은 먼저 오늘날의 자본 주도의 세계화를 세계화의 시작이 아니라 계몽주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근대성의 완성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서구화, 즉 근대화가 마련한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인 틀은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딜릭 자신은 이러한 세계화를 넘어선 윤리적인 세계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한 세계화가 어떤 양태를 띠 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못한다.¹³⁾

이러한 딜릭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좌파적 수사가 아니다. 딜릭의 견해를 넘어서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자본 주도의 세계화라는 정치·경제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본 주도의 세계화가 표상하는 서구 근대성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합리성,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서구 근대성의 체계는 자본 주도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기제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저항적일 때조차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실상 서구 근대성이 투영하는 보편 특수성의 길항관계에 기대고 있다는 혐의 때문일 것이다. 즉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동일한 논리로 ‘민족적’ 특수성을 서구적 ‘보편’으로 가름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절박한 학문적 과제는 단순히 민족국가의 상상성(想像性)을 강조하여 이를 해체한다든가 특정한 문화양식에서 발원한 보편성이나 더 나아가 세계 시민성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민국가,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몽주의, 합리성 등의 개념어가 보편과 특수성의 이분법을 통해 세계화뿐 아니라 그 대항논리마저 규정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간의 현실과 경험을 이들을 넘어서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세계화(mondialisation)를 들 수 있다.¹⁴⁾ 일반적인 불어 용법에서

13) Dirlik, *Global Modernity: Modernity in the Age of Capitalism* (Boulder and London: Paradigm Publishers, 2007), pp.3-9.

14) Nancy, *The Creation of the World or Globalization*, François Raffoul and David Pattigrew (tr.)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globalisation’과 ‘mondialisation’은 같이 세계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낭시는 전자가 전파하는 경제적, 기술적 획일화가 인간이 살 수 없는 반세계(1'im monde)를 생산한다고 보고 국경과 자본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의 추구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faire monde)를 후자로 명명한다.

물론 낭시의 논의는 대단히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보편주의-더욱 엄밀하게는 서구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종류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이론적 지형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차지하는 불안한 위치 역시 이러한 실천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논의는 활발한 편이다. 예를 들어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와이치 디목(Wai Chee Dimock)의 작업은 최소한 지적 차원에서 보편과 특수성을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구적 번역(global trans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디목은 하나의 텍스트, 예를 들어 쏘로우(Henry Thoreau)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미국이라는 특수성이나 유럽 근대, 혹은 “근대문학”으로 대표되는 보편성의 틀이 아니라 고대 아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를 횡단하는 다언어적이고 횡단적인 언어행위(translingualism)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¹⁵⁾

최근 트랜스내셔널한 접근 방식이 주목을 끄는 분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던 역사에서이다. 물론 단일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지구적인 역사를 서술하려는 시도는 근대 역사학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조셉 슈펜글러(Joseph Spengler),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등은 모두 문명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사를 주장했다. 20세기 후반에도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l)의 『서구의 흥기(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와 호지슨(Marshall Hodgson)의 『세계사를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World History: Essays on Europe, Islam

15) Dimock, “Planetary Time and Global Translation: ‘Context’ in Literary studies,” *Common Knowledge*, 93(2003). 디목에 대한 언급은 박선주 「‘영어전용’과 미국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의 단언어성, 다언어성, 횡언어성에 대한 고찰」, 『영어문학 54』(2008)에서 참조. 횡언어행위에 관해서는 류(Lydia Liu)의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 in China, 1900-1937* (New Y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and World History)』를 대표로 하는 세계사 서술의 시도가 이어졌다. 이 “세계사”들의 한계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명백할 것이다. 이들의 세계사는 분명 역사의 관심을 다시 민족국가에서 세계사적 현실로 돌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세계”는 여전히 유럽 근대사의 범주를 원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근대성, 과학,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를 구성한다면 관점 자체의 중립성(이조차도 확보하기 힘든 것이겠지만)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서구의 역사적인 경험에 편재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역사학을 떠나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을 택한 역사학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인식론적 전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날학파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의 재인식과 나아가서는 상상지리학(imaginary geography)의 시도,¹⁶⁾ 역사를 실증적으로 보다는 이야기로 파악하려는 구성주의적 접근,¹⁷⁾ 제국과 식민지를 언어적으로 다시 파악하려는 탈식

16) 브로델의 지중해 세계,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공간,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등을 이러한 재인식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Paris: Livred Poche, 1949);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Henri Lefevre,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Wiley-Blackwell, 1992); idem, *Critique of Everyday life* (New York: Verso, 2008). 물론 이러한 상상지리학의 가장 좋은 예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겠지만 이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다룬다.

17) 탈구조주의의 세례를 받은 헤이든 화이트와 사회사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홉스봄의 작업을 들 수 있다. Hayden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White, *Tropics of discourse: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6); Eric Hobsbawm and Ter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

민주의는¹⁸⁾ 전통적이고 일국가적인 역사서술을 비본질적이고 구성적인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물론 이들 이론이 가지는 구체 역사서 부재와 현학적, 또한 서구를 서구의 이론으로 해체, 서구의아이러니 등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의 업적의 중요성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 인식론적 전환은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중요한 준거점이기는 하지만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모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새로운 인식론적 바탕 위에서 구성된 대표적인 트랜스내셔널한 역사로는 “얽힌 역사(histoire croisée)”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마이클 워너(Michael Werner)와 베네딕트 짐머만(Bénédicte Zimmermann)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교나 문화의 전이를 넘어서, 비교가 아닌 교차(cross)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교차의 개념은 외부의 준거가 없는 개개의 개체에 의거한 고찰을 거부한다. “얽힌 역사”는 단순화시키고 동질화시키는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복수성과 그에 수반되는 복잡한 사회형태(configurations)을 인정한다...교차한다는 것은 넘나드는 것이며 서로 얽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새로운 교차의 방법론을 통해 비교의 방법론이 추구하는 동질성과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를 기술하는 새로운 역사기술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트랜스내셔널한 역사 기술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연구 대상을 단순히 문화 교류의 양상이나 경우만을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트

18) 사이드, 스피박(Gayatri Spivak), 바바(Homi Bhabha),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 등의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식민주의나 종속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제국과 민족의 이분법을 강화시켜 실상은 서구중심적 국민국가체제를 강화할 뿐이다. 즉 제국과 민족은 모두 서구적이며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그 출발점 혹은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담론은, 제국의 압박에 대한 저항의 차원을 심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탈식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가장 잘 지적하고 있는 어구는 차크라바티의 “유럽의 지방화(provincializing Europe)”일 것이다.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0); Bhabha, *Nation and Narration* (London: Routledge, 1990).

19) Werner & Zimmermann, “Beyond Comparison: Histoire Croisée and the Challenge of Reflexivity,” *History and Theory*, 45(2006), p.38.

랜스내셔널(transnational)”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혹은 오역²⁰⁾-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국가 중심적, 민족 중심적 역사서술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트랜스내셔널한 국가사는 실제화된 민족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적 자아, 국가적 지식, 국가적 권력 등의 주제들을 문제화하고 이들의 형성과정이 어떻게 국가 혹은 국가 기제/효과(state apparatus/effect)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핀다. 이 과정 역시 어떤 “감춰진 진실”을 발굴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점의 지속적인 교차와 꼬임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²¹⁾

둘째, 트랜스내셔널한 주체와 윤리 역시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중요한 주체이다. 이러한 작업은 역사학의 맥락에서 보면 지나치게 규범적, 윤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규범성 자체가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규범에 의해 지워진 목소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원해 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트랜스내셔널한 주체나 윤리가 어떤 규범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실제-혹은 파편적인 트랜스내셔널한 행위의 모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다 상위, 하위의 단위-예를 들면, 지구, 지역, 가족, 도시, 상권, 이민권, 생활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²²⁾

마지막으로 트랜스내셔널한 역사의 방법론은 철저히 구성주의적이다. 즉 국가/문화요소/자아 등을 고정적 실체로 보지 않으면서 이들 자체의 생성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 효과(state effect)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또한 비교사적인 방법론을 해체, 재구성하여 비교가 아닌 교차의 관점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역사를 기술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지역학 혹은 문화연구와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연계는 반성적인 인식론의 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트랜스내셔널 역사의 방법론은 그대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인식

20) “Trans-”라는 접두어는 초월하다라는 의미의 “supra-”와는 분명 다른 의미 구성을 지닌다.

21) 이러한 문제의식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토머스 벤더(Thomas Bender)가 편집한 *Rethinking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에 모인 논문들을 들 수 있다.

22) 이러한 접근의 극단적인 예로는 데이비드 크리스찬(David Christian)와 프레드 스피어(Fred Spier)등이 주도하는 거대사(Big History)를 들 수 있겠다.

론적 기초로 환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국가 중심적 사고와 서구 중심주의의 동시적 극복, 새로운 전지구적 현실에 반응하는 새로운 상황적 윤리의 도출, 이들에 대한 구성적인 접근은 보편-특수의 길항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담보하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어쩌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트랜스내셔널한 상황일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트랜스내셔널한 현실은 자본 주도의 세계화라는 구조적 억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²³⁾ 자본의 억압과 국가의 강제라는 동전의 양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세계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공통성의 기반(계급? 공통성을 가진 기억?)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과제로 남아 있다.

23) Joe Bandy, Jackie Smith et al, *Coalitions across Borders: Transnational Protest and the Neoliberal Order* (Lanham a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5); Donnatella della Porta, Massimiliano Andretta, Lorenzo Mosca & Herbert Reiter, *Globalization from Below: Transnational Activists and Protest Network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Abstract>

Multiculturalism and Transnationalism

Kyung Hwan Oh(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ever-globalizing world requires new ways of thinking about modern society. Two ways of thinking about it have come to our attention. Since late nineteenth century, multi-culturalism has functioned as a powerful critique of nation-state centrism, while its political expression, identity politics, has personalized politics. Yet multi-culturalism could not escape from essential categorization of human existence. Even Appiah's more measured and complex cosmopolitanism may prove to be encapsulated in the modernist framework that produced the very nation-state centrism. Growing appeal of transnationalism is testament to the necessity of new conceptualization of modern society. Though it embodies the danger of justifying globalization by financial as well as industrial capitalism, transnationalism offers new epistemological percepts, through which history and modern society can be viewed.

주제어

다문화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세계화, 지구적 근대성, 정체성 정치

Key Words

Multiculturalism, Transnationalism, Globalization, Global modernity, Identity politics

e-mail: khmithranthir@gmail.com